

GCF 구조화 대화 – 태평양 지역 잠재력 확인

2017.7.21. 통가 – 통가에서 열렸던 녹색기후기금(GCF) 포럼이 오늘 막을 내리며, 태평양 지역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힘을 더했다.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지역인 태평양 지역에서 4일간 열린 이번 구조화 대화에는 다양한 GCF 주요 파트너가 참가하여 기후 접근법을 공유하고 기후재원의 향방을 논의했다.

하워드 뱀지 GCF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 잠재력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취약지역인 이 지역으로 기후 재정을 집중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이번 대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확인했다.” 고 말했다.

사무총장은 계속 증가하는 GCF 사업 중 다수가 태평양 지역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GCF는 쿡제도, 피지,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에서 진행될 7개 사업에 2.5억 불 이상 투자 지원을 승인했다.

이번 행사에는 태평양지역 국가 장관, 고위 정부 관계자 그리고 GCF 사업이 이행되는 국가와 GCF 간의 소통 채널이 되는 국가지정기구(NDA) 대표자 및 연락 담당자(FP) 등이 참석했다. 그 외에도 인증기구, 능력배양 사업 집행 파트너,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 대표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군소도서국은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적게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수면 및 해수 온도 상승에 대한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며, 최근 연구에서도 군소도서국의 어업 및 빈곤지역 피해가 특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웬 맥도널드 GCF 공동이사는 이번 대화의 주요 성과로 태평양지역 도서국이 기후 재정의 방향과 유형을 결정하는 데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태평양 섬국가는 기후 영향에 취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기후 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하며 2017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국을 맡게 된 피지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GCF는 국가 주인의식과 GCF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GCF 능력배양 지원 등 기후 재원이 이 지역으로 더욱 원활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구조화대화에서 나온 결과물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태평양 지역이 기후 문제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지난 달 이 지역 정부 관계자와 글로벌 민간부문 전문가가 사모아에 모여, 기후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에 대해 논의한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